

# 어떤 의원이 지역을 언급하는가?

## 국회 발언을 이용한 지리적 대표성 분석

### Online Appendix

#### A1: newsmap 추정결과

##### A1-1: 지리 추정 결과의 예

발언내용	발언자	가능도비 스코어	추정 지리
올해 2월 달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전주에서 할 때 그때 대통령 주재 회의할 때 그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이 발언했다고, 본인이 서울시의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 그전부터 ‘산업은행 이전이 자해행위’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야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금융산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는 유지 발전할 것인가 그 문제 속의 토론이라고 봅니다. 관련된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기형	4.308	서울특별시
국민의힘 부산 연제 출신 이주환 위원입니다. 지금 거리두기 4 단계 관련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기부장관님, 내일이 우리 예결소위인 것 아시지요?	이주환	3.923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비례대표 이동주입니다. 장관님, 계속 질의를 드렸었던 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주부터 대구광역시에서는 의무휴업일이 월요일로 바뀌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동주	4.269	대구광역시
인천 서구갑의 김교홍입니다. 이상민 장관님, 수해 복구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김교홍	3.682	인천광역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광주 동구남구갑 윤영덕입니다. 훌륭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어진 소임과 역할 성실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덕	4.210	광주광역시

대전 대덕구 출신 민주당 박영순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대중국 무역과 관련해서 IPEF가 많은 우려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좀 걱정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국과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앞서 존경하는 김희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여러 가지 소재.부품.장비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원자재 같은 것을 수입하는 데 다변화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사실 정부에서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는 건 맞지요? 이 IPEF가 실제적으로 구체성을 띄었을 때 중국의 그런 반응, 경제적 보복 이런 것 정부에서는 그런 고려 하나도 안 하십니까? 장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박영순

3.336

대전광  
역시

그래서 1 월 달에 보니까 울산 지역에도 재난지원금을 한 세대당 10 만 원씩 줍니다. (카드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런 카드를 주더라고요. 10 만 원, 중앙정부에서 줄 때도 보니까 카드를 주더라고요.

서범수

3.788

울산광  
역시

세종시울의 강준현 위원입니다. 먼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좀 보니까 2 주 연속 상승폭이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아요. 3080 공급대책이 영향을 줬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강준현

3.595

세종특  
별자치시

오늘 장관께서도 말씀을 누차 하셨고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자꾸 우리 민주당이 양평군민들의 IC 설치라는 열망에 대해서 외면한다 하는 그 말씀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당의 공식 입장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면서도 양평군에 IC 를 설치하는 신양평 IC 설치가 우리 당의 입장이었다 하는 점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 말씀을 자꾸 왜곡해서 마치 양평군민들의 여러 가지 입장들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지 상당히 유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 최근에 이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난 뒤에 하남시와 광주시민들 또 시나 국회의원들과 얼마나 소통을 했습니까?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남시나 광주시?

최인호

4.494

경기도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양양군에서 환경영향평가서는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펴보시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원칙들을 잘 지켜서 이후에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은미

4.182

강원특  
별자치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되는 진천군이나 또는 음성군에서 오해가 없도록,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애

3.630

충청북  
도

충남 당진시 출신 어기구 위원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어기구	3.607	충청남도
아니, 눈 앞에서, 전북 김제시까지 달려오셔서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말씀까지 들었는데도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오영환 위원장님, 1 분만 더 할게요.	오영환	3.356	전북특별자치도
지금 전남도하고 나주시에서 그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장관님, 제가 전남 지역구라서요 정말 이것 보면서 가슴이 터져 버리려고 그래요. 아니, 이것 100 명 하는데 이게 뭐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는 UNIST 할 때 전라도 국회의원들 이것 전부 동의했어요. 23 일 만에 통과시켜 줬어요. 산자위에서 이것 통과될 때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이것 지금 무슨 한전 특례 채용, 특혜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소문이 나고 있으니까 우리 김 간사님이 물어보셨다가 멋쩍게 ‘없으면 그만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장관님 좀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장관님이 지금 국무위원 입장인 건 알지만 지금 전남의 지역구 의원인 저, 전남도민들은 속이 터져 버릴 지경이에요. 좀 삼시다, 살아, 전라도 사람도. 뭐 안 됩니까,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소병철	4.353	전라남도
구미시를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장관님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과기정통부가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보이시지요?	김영식	4.353	경상북도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려면 야당의 좋은 의견들을 최대한 받으시고, 억지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받으시고, 이 법이 국민들이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사천하고 남해, 하동, 어제 또 경남도 의장까지 올라왔어요. 내일 또 시장이 올라오고 모레 또 사천시에서 올라오고 하는데 이 뜻은 지역 이기주의라고 보시지 말고 전 국민들의 바람으로 봐야 됩니다. 어디 들어서든지 간에 좋다 이거지요. 좋은데, 그 판단은 행정부가 여러 가지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하겠지 하는데, 이 자체가 너무 늦은 것이 제가 근본으로 지금 다시 돌아갈게요. 지역적 문제 때문입니까, 법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봅니까? 장관님께서 어떤 식으로 보고 계세요?	하영제	4.300	경상남도
조정훈 의원이고 그 위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쓰여 있네요. 공동 주최 맞지요?	진성준	3.460	제주특별자치도

지금 대한민국 금융 당국은 4 차 산업혁명의 세계적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 판치금융이라는 비판까지 들으면서 핀테크 업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가 우리나라 금융 당국을 이끄는 수장이 된다면 지금 대한민국 핀테크 선두에 있는 카카오뱅크는 물론이고 또 경쟁업체들에 대한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지금 한투금융그룹의 125 개 관련된 회사에 하나하나 다 제척된다면, 4 차 산업혁명 시기에 빠른 의사결정이 생명인데 이건 불가능하다. 또 하나는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한투금융그룹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강민국	- 0.0000 6	지역 없음
-----	------------------	----------

지금 9.2GW 의 내역을 보니까 말이지요. 신한울 1 호기,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는 신한울 1 호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또 발전사별로 총가동을 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을 다 포함을 시켰던데 발전기 출력 상향이라든가 또는 전압 조정 또 수요 감축도 포함이 됐어요.

이철규	- 0.0000 6	지역 없음
-----	------------------	----------

---

주: 추정된 지역(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발언과 지역 없음으로 추정된 발언을 추출했다.

A1-2: 추정된 발언의 지역 집계 결과

광역자치단체	총발언수	의원 발언수(A)	발언 의원 수(B)	1인당 발언수(A/B)
서울특별시	1124	861	234	3.679
부산광역시	430	331	123	2.691
대구광역시	239	188	74	2.541
인천광역시	277	227	83	2.735
광주광역시	245	195	89	2.191
대전광역시	134	97	46	2.109
울산광역시	152	127	62	2.048
세종특별자치시	78	54	34	1.588
경기도	570	468	154	3.039
강원특별자치도	67	50	32	1.562
충청북도	37	28	17	1.647
충청남도	38	29	18	1.611
전북특별자치도	38	31	23	1.348
전라남도	120	87	37	2.351
경상북도	170	138	53	2.604
경상남도	104	86	38	2.263
제주특별자치도	186	124	69	1.797
지역 없음	402819	226667	315	719.578

주 1: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리는 기초 자치체(시·군) 레벨로 추정해, 광역 자치체 레벨로 다시 집계하고 있다.

주 2: 21 대 국회 전 기간의 추정 결과이기 때문에 의원 수는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다.

## A2: 회귀표

	(1) 통제 없음	(1) 통제 있음	(2-1) 통제 없음	(2-1) 통제 있음	(2-2) 통제 없음	(2-2) 통제 있음	(3) 통제 없음	(3) 통제 있음	(4) 통제 없음	(4) 통제 있음
절편	9.720	7.718	12.010	12.212	3.002	3.287	8.117	3.177	7.670	4.160
	(1.218)	(6.504)	(4.064) <sub>t</sub>	(12.48)	(0.703)	(2.172)	(0.806)	(5.391)	(0.828)	(5.352)
지역구 더미	5.795	6.440								
	(1.442)	(1.790)								
지연	0.140	-0.420					-0.219	0.005	-0.018	0.210
	(0.293)	(0.475)					(0.199)	(0.321)	(0.219)	(0.329)
지방정치 경험	2.070	1.797					2.331	2.035	5.046	5.181
	(1.238)	(1.302)					(0.872)	(0.911)	(1.543)	(1.600)
당선횟수	-2.781	-3.000	-4.984	-3.873	-1.246	-0.968	-1.587	-1.864	-1.567	-1.809
	(0.413)	(0.484)	(3.731)	(3.809)	(0.645)	(0.658)	(0.281)	(0.342)	(0.280)	(0.339)
22 대 출마			0.872	0.384	0.218	0.096				
			(2.228)	(2.513)	(0.385)	(0.434)				
지방정치 경험 × 지연									-1.083	-1.252
									(0.510)	(0.526)
여성 더미		1.278		4.023		1.006		0.475		0.514
		(1.346)		(1.882)		(0.325)		(1.101)		(1.090)
연령		-0.010		-0.144		-0.036		0.092		0.084
		(0.074)		(0.103)		(0.018)		(0.062)		(0.061)
교육수준		1.520		2.280		0.570		1.311		1.233
		(0.993)		(1.693)		(0.292)		(0.771)		(0.763)

출신지 일지	1.396			-0.349	-0.083
	(1.584)			(1.073)	(1.068)
득표율				-0.020	-0.034
				(0.051)	(0.050)
국민의힘	-3.432	-1.273	-0.318	-4.237	-4.496
	(3.748)	(6.351)	(1.097)	(2.541)	(2.517)
국민의미 래	-3.468	-6.222	-1.556	1.878	1.875
	(4.455)	(6.480)	(1.119)	(3.687)	(3.649)
개혁신당	-3.963	0.280	0.070	-4.136	-3.658
	(5.353)	(8.619)	(1.488)	(3.918)	(3.883)
조국혁신 당	-8.637			-7.616	-8.013
	(8.718)			(5.849)	(5.792)
더불어민 주당	-4.065	-5.660	-1.415	-3.829	-3.872
	(3.640)	(6.354)	(1.097)	(2.448)	(2.423)
더불어민 주연합	-2.304	-3.326	-0.831	0.392	0.075
	(4.244)	(6.611)	(1.142)	(3.229)	(3.199)
무소속	-0.763			-1.870	-1.789
	(4.460)			(3.067)	(3.036)
진보당	-				
	4.309			-8.190	-7.921
	(8.800)			(6.077)	(6.016)
자유통일 당	-8.954			-4.628	-3.726
	(8.918)			(6.037)	(5.987)



녹색정의 당	-1.426	-5.323	-1.331	0.035	-0.410					
	(5.131)	(6.842)	(1.182)	(5.954)	(5.896)					
영남	2.916			-0.158	-0.066					
	(1.626)			(1.156)	(1.145)					
호남	0.099			-1.044	-1.191					
	(1.870)			(1.481)	(1.467)					
강원	1.420			-2.710	-3.113					
	(3.071)			(2.087)	(2.073)					
충청	0.290			-1.291	-1.555					
	(1.841)			(1.250)	(1.242)					
제주	-3.869			-1.262	-1.320					
	(4.734)			(3.211)	(3.178)					
2021 년			-0.489							
			(0.426)							
2022 년			-0.362							
			(0.426)							
2023 년			-0.085							
			(0.426)							
Num.Obs.	298	292	47	47	188	188	251	248	251	248
R2	0.173	0.224	0.041	0.299	0.021	0.160	0.151	0.238	0.166	0.257
R2 Adj.	0.161	0.158	-0.003	0.078	0.010	0.092	0.140	0.160	0.152	0.177
AIC	2072.4	2052.5	310.3	313.6	827.3	822.4	1551.3	1547.9	1548.8	1543.7

종속변수	지리	지리	지리	지리	지리	지리	지역 구	지역 구	지역 구	지역 구
데이터	전의원	전의원	비례	비례	비례 (년)	비례 (년)	지역 구	지역 구	지역 구	지역 구

---

주:()는 표준 오차.